

후보들 “배심원단 참여 하세요”… 지지자들에 내놓고 호소

국민의당 광주 경선 ‘숙의배심원제’ 곳곳 허점

국민의당이 4·13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해 광주지역에만 도입한 ‘숙의배심원단’ 제도가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공정한 경선이 가능할지 우려된다. 각 예비후보들의 선거캠프에서 배심원단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배심원단에 ‘자기 사람 심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번 주말부터 치러지는 숙의배심원단 경선을 앞둔 국민의당 예비후보들이 최종 후보 결정을 좌우할 배심원단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배심원단 모집 전화에 적극 참여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는 기본이고 SNS를 통해 상세한 참여 방식을 알리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지금 국민의당 숙의배심원단 모집전화가 02(서울) 번호로 온다. 국민의당 지지자 혹은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을 대상으로 모집 중이다”면서 “끝까지 응대해 꼭 배심원단 모집에 응해주시고, 배심원단에 선정되신 분은 선거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고

**배심원 자기 사람 심기 우려
신인·여성·장애인 가산점
탈락 후보 재출마 가능성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일부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구 경선 시간까지 자세히 알려주면서 반드시 그 시간대에 배심원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심원 모집 과정에서 일부 배심원들이 예비후보들에게 노출되거나, 예비후보 지지자 또는 지인들이 지지 후보 선거구의 배심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시당 관계자는 “경선 후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당해 숙의배심원단에서 제척하는 등 공정한 경선을 위한 숙의배심원단들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공직후보자 추천 시행세칙에 따라 숙의배심원단제에 정치 신인 또는 여성·장애인 후보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선에서 한 후보에게라도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가 경선에 불복, 해당 선거구에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허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경선에 참여한 후보는 해당 선거구에 출마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경선에서 가산점이 부여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숙의배심원단 투표 경선을 도입한 이유는 진정한 의미로 후보 선택권을 국민에게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정당의 변칙이 가미된 상황상 공천이 아니라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구석 구석 살피고 토론을 통해 가장 적합한 지역 일꾼을 후보로 결정하는 것으로 지역 유권자가 후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숙의배심원단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갈등 봉합? 야권연대를 놓고 갈등을 겪던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와 안철수 공동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천 대표는 이날 나흘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김종인 “총선 107석 안되면 대표직 사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야권연대 현재로선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6일 4·13 총선에서 현재 의석수인 107석에 미달시 대표직에서 사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총선 목표에 대해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 놓여 있어 쓸데없이 지나치게 낙관해선 안 되는 것 같다”며 “현재 가진 의석수 정도만 확보하면 선전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목표 미달시 당을 떠날 것이

냐는 질문에 “선거결과가 나오면 선거를 이끈 사람이 책임지는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겠다.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목표 달성시 당 대표 출마 의향을 묻자 “그런 생각은 현재로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서 “당 내부 사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관건 아니겠느냐”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또 대권 도전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질문에 꼭 대답해야 하는 지...”라며 측답을 피했다. 그는 특히 ‘김메이커나, 대선 출마냐’라고 또다시 묻자 “당히 보다 정상화할 수 있는 때까지 일해줘야 되느냐는 내가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한 뒤 “김메이커 노릇은 더 이상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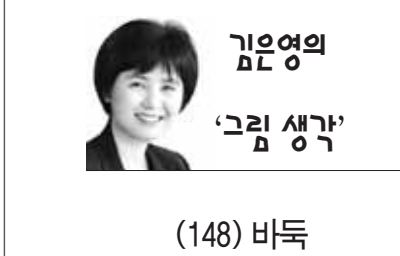
김 대표는 국민의당과의 야권 통합 내지 수도권 연대에 대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면서 “당대당 야권연대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정의당과의 연대 문제에 대해 “현재 그 쪽과 일단 대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주 극소수에 한해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정체성이 다른 당이 연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책연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해찬 의원의 공천 배제에 대해서 “우리 당 전반의 선거구도를 생각하고 어느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표를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섭단체 채운 국민의당 임내현 거취 주목

국민의당이 정호준 의원의 합류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갖추면서 공천에서 배제된 임내현(북구) 의원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필요한 의석수 20석을 가까스로 채웠지만 임 의원이 탈당하면 다시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거취를 밝힐 예정이다.

임 의원은 “뜻있는 많은 분이 제게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줄기차게 권유했다”면서 “어떤 결정이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과 북구 주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지 깊이 고심해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임 의원은 공천배제 발표 직후 당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하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낭만 사라진 이세돌-알파고 대결 씬쓸



(148) 바둑

요 며칠 사이 최대의 화제는 단연코 알파고와 바둑, 아니 이세돌이었다. 천 개가 넘는 컴퓨터가 결합된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 알파고에 맞서 홀로 광야에 선 듯 고군분투하며 고도의 집중력과 초인적인 의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던 이세돌기사는 이제 우리 인류에게 전설이자 역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알파고와 이세돌이 겨뤘던 다섯 번의 대국은 역사적인 순간이면서 동시에 참 씬쓸한 장면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다. 전통적인 바둑에서 보여 지는 사람 사이의 긴장과 낭만 없이 냉정한 기계의 계산이 압도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

서 구한 말 활동했던 기산 김준근(? ~ ?)의 풍속화 ‘바둑 두기’는 귀하고 반가운 그림이다. 이 작품 속에는 심각하게 바둑 두는 사람과 그 수를 헤아리며 돌을 만지작거리려는 또 한 사람, 그 결 혼수꾼들의 적극적인 모양새, 직접 두지 않으니 더욱 고수인양 판을 재촉하는 모습의 어우러짐이 흥미롭게 느껴진다. 17세기 말 발아된 풍속화가 18,19세기에 이르러 발전하고 퇴조하기까지의 회화사적 과정을 보면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는 회화성이나 장식성보다 기록적인 성격의 작품으로 파악된다. 구한 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번역소설인 ‘터포력령’(1895년)에 우리 복식으로 변안한 삽화를 그린 화가이기도 한 김준근은 서울과 개항장인 원산, 부산, 인천 등지에서 활동했다. 그의 작품들은 개항 이후 외국인의 조선 풍속에 대한 관심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풍속화가 함부르크 민족학



김준근 작 ‘바둑두기’

박물관 등 외국에 소장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준근의 풍속화들은 주로 매사냥, 바둑, 장기, 투호, 상륙 등 조선의 놀이 풍속과 방직, 무명짜기, 대장장이, 발갈이 등 생산 활동과 연희 문화를 담고 있다. 그 작품들이 현장 사생의 생동감이나 예술적 품도는 떨어지지만 기록화적인 성격이 강한 편이어서 최근 함부르크대학에서 민족학을 연구했던 조홍윤교수(한양대)가 기산 풍속화들을 엮어 ‘민속에 대한 기산의 지극한 관심’을 펴내는 등 민족학자들에게 풍속, 복식, 민속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재조명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백원광주안과**의원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소아안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태영21병원**
TAEYOUNG 21 HOSPITAL

당뇨병-갑상선 건강강좌

좌장 · 이문규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이사장)
강사 · 김재현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총무이사)
강호철 교수(화순전대병원)
김순호 부장(광주기독병원)
김상용 교수(조선대병원, 현 당뇨병학회 수석 부총무)
양태영 원장(태영21병원, 현 당뇨병학회 일차진료 이사)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3:30~4:30
장소 · 태영21병원 2층 세미나실
문의 · 062)362-0075 (광주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21병원 제22회 정기 음악회
3월 18일(금) PM 6:30

이문동

광주천변로

광천사거리

유스퀘어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